

제주 출생아 수 4000명대 무너졌다

작년 3989명으로 역대 최저... 전년보다 11.4% 감소 2000년 8633명에서 2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져 코로나 사태 속 혼인 감소가 출생아 감소로 이어져

제주지역의 출생아 수가 작년 사상 처음 3000명대로 내려앉았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02명으로 1명을 겨우 유지했는데, 이 역시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25일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작년 도내 출생아 수는 3989명으로 1년 전(4500명)보다 11.4%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4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1981년 9723명이었던 도내 출생아 수는 1988년에는 6309명까지 빠르게 감소했던 적이 있지만 1991년 8053명으로 증가한 후에는 2000년(8633명)까지 줄곧 8000명대를 유지했다. 그후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5000~7000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고, 2008~2016년에는 5000명대에 머물렀다. 2017년(4781명)과 2018년(4500명)에는 4000명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감소폭이 확대되며 결국 4000명대도 무너졌다.

작년 도내 합계출산율은 1.02명으로 2016년(1.43명) 이후 5년 연속 감소했는데, 고령화 속도가 빠른 서귀포시는 0.98명으로 제주시(1.04명)보다 더 낮았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1명이 넘는 지역은 세종(1.28명), 전남(1.15명), 강원(1.04명), 충남(1.03명), 제주, 경북(1.0명) 등 17개 시도 중 6개 시도로 집계됐다. 작년 도내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9세로, 2010년(31.4세)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1.5세 높아졌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1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도내 출생아 수의 빠른 감소는 청

년층이 입시부터 취업까지 경쟁 속으로 내몰리며 결혼이 늦어지거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욕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여기는 인식 변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작년 도내 혼인건수는 2981건으로 사상 처음 3000건 아래로 떨어졌는데, 전년(3358건)에 견줘 11.2% 감소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도내 출생아 수(잠정)는 2032명으로, 작년 동기(2095명) 대비 3.0% 감소했다. 혼인건수는 1339건으로 작년 동기(1604건)보다 16.5%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는 상황이라서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웃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s@ihalla.com

60대 남성 술집에... 밧줄 타다 3층서 추락

술을 마신 60대 남성이 밧줄을 타고 아파트를 내려오다 떨어져 다쳤다. 25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5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아파트 3층 높이에서 로프를 타던 A(62)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무릎 등에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를 한 상태로, '레펠을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밧줄을 이용해 건물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kms6610@ihalla.com



안개 낀 평화로 25일 평화로 일대에 짙은 안개가 끼자 차량들이 안개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전기차 전국서 세 번째로 많아 올 7월 기준 2만3262대 등록... 전국 비중 12.8%

제주지역 전기자동차가 전국에서 서울,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7월 자동차 등록 대수' 통계를 보면 제주지역 전기자동차는 2만3262대로 전국 18만966대의 12.8%를 기록했다. 특히 도내 전기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경기(3만30

대), 서울(2만8752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제주와 서울·경기에 등록된 전기자동차(8만4407대)는 전체 46.6%를 차지했다. 6월에서 7월 전국 전기차 증감비율을 보면 전기차 지방보조금이 많은 충남이 가장 높은 10.9%가 증가했으며 인천 8.4%, 충북 8.3%, 전북 7.1% 순으로 신규등록이 늘었다. 반

면 제주는 1.9%(424)를 기록해 대구(1.8%), 울산(1.6%)에 이어 낮은 증감율을 보였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2019년 9만대에서, 1년반 만에 누적대수 18만966대로 2배가 급증했다. 제작사별로는 현대차(44.6%), 기아(20.3%), 테슬라(14.8%)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 올해 새로 등록된 전기자동차(4만7508대) 중에서는 포터II(화물, 9793대)가 가장 많았으며, 아이오닉5(8628대), 테슬라 모델3(6291대),

볼보III(화물, 6047대) 순으로 등록됐다. 이와 함께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꾸준히 늘면서 최근 1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이브리드차가 80만6000여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차 18만여대, 수소차 1만5000여대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특 튀어나온 야생동물 '황'

작년 제주 로드킬 사고 898건... 하루평균 2.5건

제주지역에서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제주 지리에 익숙치 않은 렌터카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로드킬 발생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로드킬 예방과 로드킬 저감 계획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야생동물(조류 포함) 로드킬 신고 건수는 >2018년 659건 >2019년 850건 >2020년 8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고가 들어와 사체를 처리한 건수로, 신고 없이 사체를 치워놓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로드킬이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로 중산간도로 및 5·16도로, 1100도로 등이 꼽힌다. 대부분 산 중턱에 위치한 곳이다. 늦은 밤 노루가 차도로 뛰어드는 이유는 차량의 상황등 때문이다. 야간 운행 시 시야를 위해 상황등을 켜고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루는 밝은 빛으로 인해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 도망가지 않고 멈춰 있기 때


노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하는 차량 파손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도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1100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김모(29)씨는 "노루가 갑자기 튀어나와 손쓸 틈도 없었다"며 "앞 범퍼가 완전히 다 깨져 수리비가 100만원 가량 발생했다.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속이 너무 상한다"고 토로했다. 노루를 피하려다 경계석이나 표지판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시24분쯤 서귀포 성산읍 수산리 금백조로에서 김모(33)씨가 몰던 승용차가 튀어나온 노루를 피하려다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고 16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5·16도로에 야생동물 진입차단시설(펜스)을 설치하고 있다. 8월 말 완공 예정"이라며 "로드킬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사체는 지정된 업체를 통해 폐기물 문에 차에 치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강민성기자

고3·고교 교직원 95% 이상 2차 집중

초3~6·중학교 교직원은 내달 1일부터 2차 집중

2학기 학사일정에 돌입한 제주 도내 고등학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과 보건·특수 교사의 95%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수급 문제로 2차 접종이 연기된 초3~6학년 교사 등 유·초·중 교직원의 백신 접종은 9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질병관리청 자료) 도내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의 2차 접종률은 95.7%(대상자 9200명 중 8807명 접종), 보건·특수교사는 95.9%(1010명 중 969명)로 집계됐다. 보육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초·중학교 등 관련 교육종사자의 2차 접종률은 34.4%(1차 접종률 95.3%)였다. 유·초·중 교직원의 2차 접종은 당초 8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접종간격이 연장되면서 9월

1일부터 11일로 변경됐다. 한편 교사의 백신 접종으로 수업 결손 우려가 지적되자 도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1주일 기간 내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오은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6·25 인천상륙작전 출정 기주년 및 해병 혼 탐 건립 61주년 기념

제 21회 제주해병대의 날

9월 1일은 제주해병대의 날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 주관 | (사)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해병 혼 탐 참배·기념식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취소합니다

제주해병대의 날 제정 취지문

우리 제주도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제2의 발상지이다. 6·25전쟁에서 역전의 승기를 잡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대한민국 해병대 3·4기생 3,000여명이 바로 우리 제주도의 후예들이다. LST의 청년들이 호국의 결의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1950년 9월 1일 정든 고향 부모형제를 떠나 제주도를 입고 제주항을 떠나 충열이 빛나는 전장으로 출정하는 것이다. 인천에서 평안남도 자개리로, 서울에서 강원도 도솔산으로, 쓰러진 전우들의 시체를 넣고 넘어 무적해병의 장한 승전보로 오늘날 국방의 최강부대 대한민국 해병대의 반석이 되었다.

우리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의 모든 예비역 해병전우들은 자랑스러운 호국영웅인 3·4기 선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국가 안전보장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21세기 세계화 무한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평화와 번영의 제주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9월 1일과 해병혼탐은 백척간두에 처한 나라를 구한 구국정신과 제주인의 열이 영원하리라 믿으면서 제주해병대의 날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바이다

2001년 9월 1일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사)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회장 강대성 · 수석부회장 강상혁 · 사무처장 고대경 (010-3691-1732)